



정교회주보

제2520호

2025년 4월 13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성지 주일

성 마르티노 로마 총대주교 고백자
(축일 조과에서)

- '찬양되시는 주여...' 생략
- '그리스도를 본 후에...' 생략
- 엑사쁘스틸라리온은 '주 우리 하느님은 거룩하시다'만 3번 부른다.
- 이어서 '종려 가지 축성기도'
(각종 예식서 371)
- '대영광송' 다음에 '성지주일 찬양송'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성지 주일 제 2 응송 239
- " 찬양송 239
- " 입당송 239
- " 시기송 239
- 사도경 : 필립비 4,4~9 239
- 복음경 : 요한 12,1~18 240
- 성지주일 성모송 (비고정 성가집 67)
- " 영성체성혈송 241
- '우리가 참 빛' 대신 성지 찬양송 239

사진 설명

성작, 제온, 성 수저

성작(사진 가운데)은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던 성배를 상징한다. 보통 에나멜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4명의 복음 저자들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 안쪽은 은으로 도금되어 있다. 사제는 예비 제단의 봉헌 의식에서 봉헌물을 준비하면서 성작에 붉은 포도주를 붓는데 이 포도주는 성찬예배에서 성혈로 변화한다.

제온(사진 왼쪽)은 뜨거운 물을 담는 금이나 은으로 도금된 작은 잔이다. 성찬예배에서 성혈이 담긴 성작에 뜨거운 물을 넣는 데 사용한다. 이는 "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요한 19,34)라고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다.

성 수저(사진 오른쪽)는 금이나 은으로 도금되어 있으며, 신자들에게 성체성혈을 영해 줄 때 사용한다. 이때 사제는 "우리 하느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생명을 주시는 성체와 성혈이 하느님의 종 (...)에게 주어지니, 당신의 죄 사함과 영생이 되리이다"라고 기도한다.

교회 초기에는 사제가 성체를 신자의 손바닥 위에 얹어주었고, 성혈은 성작에서 직접 마시게 했지만 9세기부터 지금의 방법으로 바뀌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전후로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 정도에 따라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가식 없는 사랑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행위는 주님 향한 확신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며,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식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가리옷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대단히 의로운 척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보며 감동하기는커녕, 그 향유를 돈으로 환산하며 비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전 서른 닢에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말하면서도 진정으로 주

님을 의지하거나 삶에서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의 군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미 받으소서!”라고 외치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을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 줄 존재로만 생각하기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등을 돌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찬양이 일관되게 지속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예루살렘 군중처럼 무관심하거나 변절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헌신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인지, 가리옷 사람 유다처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위선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군중처럼 언제든 절개 없는 믿음에 그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희생을 기억하며, 회개와 분명한 믿음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무신론자와 노파

어느 사제의 일기장에 쓰인 실화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때는 밤 열두시 자정이었다. 누군가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

나이 많은 노파였다. 노파는 사제에게 자기 집에 같이 가서 다 죽어가고 있는 어떤 병자에게 성체성혈을 영해주기를 간청하였다.

사제는 즉시 준비해서 그녀와 함께 떠났다.

집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노파는 문을 열고 사제를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때 사제는 그 노파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자신과 환자만 그 방 안에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다.

환자는 사제를 보자 화난 표정과 몸짓으로, 손으로는 문을 가리키면서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나가시오! 누가 당신을 여기로 불렀소? 나를 혼자 있게 놔두시오. 나는 무신론자요. 일생 동안 무신론자로 살아왔고, 무신론자로 죽을 것이요!”

사제는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어안이 병병해졌다.

“하지만 나는 여기 혼자서 온 게 아니요. 어떤 노파가 와달라고 해서 온 것이요.”

“노파라니 어떤 노파 말이요? 난 어떤 노파도 아는 바가 없소!”

사제는 환자를 마주 보고 반대편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는 환자의 머리 위 벽에 걸려 있는 사진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그날 밤 자신을 이 집으로 이끌었던 노파의 사진이었다. 그래서 사제는 얼른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저 노파요!”

그러자 환자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대꾸하였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저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의 사진이요!”

잠시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있었다. 둘은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환자는 울기 시작했다. 환자가 우는 동안 사제는 조용히 그 곁에서 있었다.

얼마 지나고 나서 환자는 자신의 고백성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그는 아주 아주 오랜만에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셨다.

이제껏 하늘나라에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돌봐왔던 것이며, 마침내 구원으로 가는 길도 보여준 것이었다.

알림

■ 성 대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신랑 의식부터 성 대 주간이 시작됩니다.

시간표를 참고하여 적극 참여해야겠습니다.

고백성사도 미리 약속을 잡고 임하도록 합시다.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 부활절 달걀과 꽃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성당 유아 세례성사

지난 7일(월), 성막심 성당에서 성찬예배와 함께 거행된 세례성사에서 아르테미 쿠드류코프 남아가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일본 사목 방문

지난 주말(4-5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일본 오키나와의 성 니콜라스 성당을 방문하셨습니다.

대주교 집전으로 토요일에는 4명의 예비신자가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고, 주일에는 성찬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 서울 성당, 울산 성당 꽃심기

지난 주일 성찬예배 후, 부활절 준비로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성 대 주간 및 부활절 예배 안내

| | | | |
|--------|---------|----------|---------------------------|
| 4월 13일 | 성지 주일 | 오전 8:45 | 조과,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 | | 오후 1:30 | 신랑 의식 |
| 4월 14일 | 성 대 월요일 | 오후 6:00 | 신랑 의식 |
| 4월 15일 | 성 대 화요일 | 오전 9:00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 | 오후 6:00 | 신랑 의식 |
| 4월 16일 | 성 대 수요일 | 오전 9:00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 | 오후 6:00 | 성유 성사 |
| 4월 17일 | 성 대 목요일 | 오전 9:00 |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 | | 오후 6:00 |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식 (12 복음 봉독) |
| 4월 18일 | 성 대 금요일 | 오전 9:00 | 대시과 (1, 3, 6 시과) |
| | | 오후 3:00 | 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의식 |
| | | 오후 6:00 | 에피타피오스 의식 |
| 4월 19일 | 성 대 토요일 | 오전 9:00 |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 | | 오후 8:00 | 부활절 의식,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 4월 20일 | 부활 주일 | 오전 11:00 | 사랑의 대만과 |
| | | 오후 12:30 | 부활절 사랑의 오찬 |

(지역 성당 예배 시간은 해당 성당에 문의 바랍니다.)

■ 소티리오스 대주교 묘소 보수 공사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묘소 보수 공사가 지난 4월 2일부터 나흘간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와가 파손되고 외벽이 손상되는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지붕 수리, 기와 교체, 갈라진 외벽 보수, 페인트 작업

등으로 깨끗하게 단장하였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수 공사 비용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헌금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은행 : 1005-500-073554

(재단법인 한국정교회 유지재단)